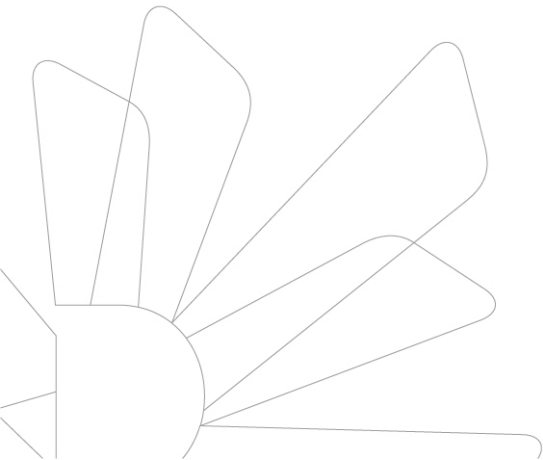


드라마와 문화



텔레비전 드라마의 플롯

제9강 개요

플롯은 일종의 여행이다. 여행은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렇지만 여행의 끝은 대개 출발지로의 귀환이다. 물리적으로 보자면 여행 전과 후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결코 육안으로 가늠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대단히 커다란 심리적 혹은 정서적 변화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드라마의 플롯 역시 여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플롯은 기본적으로 안정-불안정-안정이라는 도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제9강 텔레비전 드라마의 플롯

텔레비전 드라마의 플롯 : 불안정-안정-불안정

❖ 드라마의 플롯

- ① 평온한 상태에 머물던 드라마의 인물은 극의 시작과 동시에 갈등의 국면과 마주한다. 그는 드라마가 지속되는 내내 자신에게 닥친 갈등에 맞서 싸운다. 드라마는 대부분 그와 같은 투쟁이 승리나 패배로 마무리되면서 막을 내린다. 그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극이 시작되기 전과 같은 평온한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하지만 갈등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존재하는 평온은 결코 같지 않다. 마치 여행 전과 후에 최종적으로 머무는 물리적 위치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 사이의 경험이 추동해 낸 변화가 엄존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플롯은 드라마 속 인물이 갈등의 국면에 맞서는 양상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여행기인 셈이다.
- ② 텔레비전 드라마의 플롯 역시 대문자 드라마의 플롯과 다르지 않다. 단막극은 물론이려니와 연속물인 미니시리즈와 연속극 역시 전체로서의 그것은 안정-불안정-안정의 틀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미니시리즈와 연속극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인 낱낱의 텍스트가 취하는 플롯의 흐름이다.

제9강 텔레비전 드라마의 플롯

텔레비전 드라마의 플롯 : 불안정-안정-불안정

❖ 텔레비전 드라마의 플롯

- ① 다회로 이루어진 미니시리즈와 연속극의 편편(片片)은 안정-불안정-안정의 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순서를 뒤집어 놓기 때문이다. 즉 낱낱의 텍스트는 불안정-안정-불안정의 수순으로 배치된다.
- ② 이는 지속과 연속이라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일간 또는 주간 단위로 방영되는 텔레비전 드라마는 독자의 시선이 줄곧 자신을 향하길 욕망한다. 이러한 욕망의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는 텍스트가 일간이나 주간 단위로 분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니시리즈의 회와 회 사이에 길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발생한다. 시간적 공백은 텍스트로 하여금 자신과 독자 사이를 가로막는 여러 변수에 직면케 한다.
- ③ 텍스트를 향한 독자의 시선을 차단하는 방해 요소는 다양하다. 그것은 독자 개인의 일상에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해지는 것과 같이 텔레비전 화면 밖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동시간대 방영되는 타 방송사 미니시리즈와의 경쟁에서 독자를 빼앗기는 것처럼 텔레비전 화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드라마의 처음

❖ 갈등이 불거지는 지금/여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제8장을 온전히 할애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드라마에 있어서 ‘전체(whole)’란 모방의 대상이 되는 인간 ‘행동’의 전체이지 인간 ‘생애’의 전체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한 인간의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생애 전체가 아니라 한 인간이 처한 긴장과 갈등의 국면에서 발생하는 행동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 ② 텔레비전 드라마는 유독 생애 전체에 강한 집착을 보여 왔다. 특히 역사를 소재로 한 미니시리즈나 연속극은 거의 등장인물의 일대기적 구성을 하나의 표준으로 상정해 왔다. 등장인물의 출생과 성장, 고난과 수행, 변신과 귀환은 오래된 전형적 영웅 서사의 열개이다. 하지만 그러한 서사의 열개가 그대로 극적인 것이라 믿는 것은 대단히 우매하다. 기실 그것은 본연적 의미에서 ‘극으로서의 전체를 직조하는 플롯에 대한 무지에 다름 아니다.
- ③ 텔레비전 드라마의 처음은 독자의 이해를 염두에 둔 간이한 스토리보다 텍스트의 미감 창출을 위한 극적 플롯으로서의 지금/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드라마의 중간

❖ 차이와 분산의 미덕

- ① 미니시리즈와 연속극은 일간 혹은 주간 단위로 방영되고 단일 텍스트로서의 그것은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방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 드라마는 하나의 전체로서 차지하는 크기와 길이, 회와 회 사이의 공백과 단절 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텍스트 내적 요인과 그것의 시청이 주로 일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소극적 응시, 전체를 통관하지 않고 드문드문 시청하거나 뒤늦게 시청하는 독자로부터 연유하는 간헐적 응시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텍스트 외적 요인에 의해 반복과 차이를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 ② 반복과 차이는 주로 지속과 연속으로 점철되는 텍스트의 중간을 통해 구현되게 마련이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반복은 크게 세 가지의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반복적 구조, 재현, 복기(復碁)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복이 아니라 차이에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의 반복과 차이란 결국 같은 정보의 다른 전달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미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동일한 맥락적 정보를 어떻게 상이한 화면과 언어로 형상화하는가에 다름 아닌 것이다.

드라마의 끝

❖ 행복의 강박에서 현실의 질박으로

- ①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끝은 강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복한 결말에 사로 잡혀 왔다. 그것은 대부분의 드라마가 코미디와 멜로드라마라는 장르적 편중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즉발적 쾌락과 위무를 욕망하는 독자의 바람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포박으로부터 연유한다.
- ②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축은 실상 소비 주체인 독자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무지라기보다는 생산 주체인 저자의 독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일 공산이 크다. 그것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역사가 다다르고 있는 현재에 대한 객관적 투영이 아니라 ‘텔레비전’·‘드라마’·‘시청자’의 총합에 대한 주관적 굴절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③ 부연하자면 텔레비전이 대중적 매체이고, 특정할 수 없는 보편적 대중을 두루 아울러야 하며, 대중의 표본은 대개 우월보다 열등의 저변으로부터 산출되므로, 드라마는 미학과 예술로서의 가치보다는 소일과 오락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왜곡된 사고의 흐름이 배태한 그릇된 결과인 것이다.